

고려후기 水月觀音圖 복식에 표현된 褙의 유형과 조형특성

옥 명 선* ·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褙) Represented of Costume in Water-moon Avalokiteśvara of the late Koryo Dynasty

Myung-Sun Ok* · Ok-Lyun Park⁺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2005. 8. 16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褙)' represented of costume in Water-moon Avalokiteśvara of the late Koryo Dynas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Seon' has two main types, Standard and Decoration types. In the former type, Seon has not any decoration. While, in the latter, Seon is added with decorations. Here, Seon of decoration type can be reclassified into two types, same color and pattern and different color and pattern. Seon most appeared in the Water-moon Avalokiteśvara had the type of Decoration, especially different color and pattern. Patterns used for Seon were complex in its composition type and filling in its arrangement style. Seon was mainly used to Guneui(裙衣) and Samkakṣikā(僧脚崎). For the color combination of Seon, the combination of similar colors was most often used and that of same color was somewhat frequently done.

Regarding costume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Seon, those costumes appeared natural and elegant when their Seon was Standard in type, natural and brilliant when same color and pattern in type and artificial and brilliant when different color and pattern.

Key words: the late Koryo Dynasty (고려후기), Water-moon Avalokiteśvara(수월관음도), Seon(褙),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I. 서언

본 연구는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의 襪에 관해 연구한 바 있는 前報¹⁾에 이어 고려후기 水月觀音圖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선은 깃[領], 수구(袖口), 도련[裾], 싹[袷]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 의복색과 동일하거나 다른 색의 천을 덧댄 것으로 실용과 장식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략 150점으로 관경변상도, 아미타여래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나한도, 경변상도 등이 있는데 이 중 아미타여래도가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단일 도상으로는 수월관음도가 제일 많다.

수월관음도는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난에서 구제하여 주며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現世利益적 성격을 지닌 관음보살을 그린 그림이다. 관음이 바위 위에 반가한 자세로 앉아 있고 등뒤에는 대나무가 표현되며, 앞에는 정병에 꽂힌 버드나무 가지가 있고, 화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는 선재동자가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상으로 대부분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되었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는 동시대 타국의 불화로 일본의 白衣觀音圖나 중국의 간단한 채색만으로 된 불화 형식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된 문양들로 구성되어 있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²⁾

특히 수월관음도에 보이는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과 색상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선에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월관음도의 경우 균의의 밑단에는 보상당초문, 승각기의 단에는 당초문, 簫衣의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주로 그려져 있으므로 선에 표현된 문양과 색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수월관음도 복식의 조형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불화복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최영순, 한자령, 지미령은 보살복식에 관해 연구하였고,³⁾ 고승희, 임명자, 임영주는 불화복식 전반에 표현된 문양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고,⁴⁾ 김부귀, 이미경은 화원문, 연화문 등 특정 문양에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⁵⁾ 옥명선·박옥련·이주영

은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⁶⁾ 수월관음도에 관한 연구로는 관음신앙과 수월관음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⁷⁾와 박옥련, 정현주, 강경희의 수월관음도 의상에 나타난 문양과 白衣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⁸⁾ 복식과 관련하여 선의 문양과 색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시대 일반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과 조형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불화 중 수월관음도를 중심으로 선이 가해진 자료만을 선별하여 문양과 색상조합에 따라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양의 구성요소와 배치구도, 사용범위,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형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수월관음도 복식의 종류

1. 관음신앙

관음신앙은 일찍이 인도에서 기원한 후 大乘佛敎의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에 흡수되어 藥師信仰과 더불어 신라시대부터 행하여졌으며, 고려시대를 통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성행하고 있다.⁹⁾

관음은 자유로이 그 몸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普門品’의 설에 의해 관음 33應身說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음 신앙이 전개됨에 따라 변화관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密敎의 발달에 힘입어 6관음, 7관음, 33관음 등의 다양한 변화관음들이 성립되었는데 이 중 수월관음은 33관음의 하나로 불교미술의 주제로 채택되어 왔다.¹⁰⁾

관음보살은 觀世音菩薩의 준말이며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하고 고난에서 구제하여 주며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現世利益과 來世救濟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로 신앙되어 왔다.¹¹⁾ 관음의 이러한 성격은 불교의 二代理念인 上求菩提 下化衆生 중의 하화중생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관음신앙의 대표적인 경전인 『法華經』에는 관음의 다양한 공덕이 구체적으로 예시되

어 있으며, 이 범화경의 전파와 아울러 일어난 관음 신앙의 발달 및 密敎의 융성은 수많은 변화관음을 창출해 내었다. 이 변화관음들은 각기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며 신앙되었고 수월관음 역시 독특한 신앙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남아 있는 유품이나 기록에 나타난 수월관음신앙의 성격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손을 기원하고 순산을 비는 대상으로, 둘째는 여행, 특히 항해의 수호자로, 셋째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몸을 지켜주고 장수나 복을 바라는 護身佛로 신앙되었다.¹²⁾

고려불화의 관음도를 수월관음도라 부르는 이유는 고려 때의 李奎報가 지은 「落山觀音腹藏修補文」에서 말한 水月暉相이란 말에서 연유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관음도에 버드나무가지가 꼭 표현된다 하여 楊柳觀音이라고도 부른다.¹³⁾

특히 고려불화 중에서 가장 많은 관음보살상은 대부분 양류관음도로 일명 수월관음도 형식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외부의 침입과 혼란이 계속되어 護符, 護身佛의 신앙이 민중의 현세이익을 위해 성행되고, 除災招福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 宮廷을 중심으로 관음사상이 충만하여 수월관음도가 유행되었다고 보여진다.¹⁴⁾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일본 鏡神社(1310년)의 것과 泉屋博古館(1323년), 大德寺, 談山神社, 그리고 호암미술관의 수월관음도 등 38여 점이 알려져 있다.

2. 수월관음도 복식의 종류

관음보살의 복식을 살펴보면, 겉옷에는 大衣와 上衣, 그리고 天衣 등이 있고, 겉옷 속에 입는 옷에는 僧脚崎와 裙衣가 있고, 군의 위에 덧입는 箭衣가 있으며(그림 1),¹⁵⁾ 장신구에는 寶冠, 瓔珞, 領巾, 脛飾, 腕飾, 耳飾 등이 있다.

天衣는 보살과 天部像의 보관에서부터 양어깨와 팔꿈치를 휘감고 늘어뜨리지는 투명한 베일을 말하며, 이는 보살복식의 특징의 하나로 장식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¹⁶⁾ 천의란 하늘에서 입는 옷이란 뜻으로 천에 바늘을 사용하지않은 無縫衣로 거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형태는 확실하지



〈그림 1〉 수월관음도 복식의 종류

않다.¹⁷⁾ 수월관음도에서는 얇고, 무색의 투명한 紗羅에 다양한 종류의 문양이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大衣는 僧伽梨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서, 三衣 중에서 가장 큰 것이므로 대의라 한다. 설법을 하거나 걸식할 때에 입는 가사로, 후세에는 큰 법회가 있을 때에 입는 裝束으로 왕궁이나 마을로 나들이 갈 때 입던 외출복으로 착용되었다.

上衣는 鬱多羅僧, 優多羅僧, 郁多羅僧伽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上衣 또는 上着衣로 번역된다. 평상시 맨 위에 입는 옷으로 왼쪽 어깨를 덮었기 때문에 覆左肩衣라고도 한다.

僧脚崎는 僧祇支, 掩腋衣, 羅膊衣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왼쪽 어깨에 걸쳐 왼팔을 덮고 한 자락을 비스듬하게 내려뜨려 오른쪽 겨드랑이를 감는 옷으로 가사 밑에 입는다.

裙衣는 泥洹僧, 涅槃僧, 泥縛些那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下裙 또는 內衣라 번역된다. 이는 승려의 허리에 둘러 입는 것으로 지금의 치마처럼 하반신에 걸쳐 입는다.

箭衣는 厥修羅衣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Kusulaka의 음역이다. 이는 俱蘇羅, 厥修洛迦, 俱修羅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裙 또는 下裙으로 번역된다. 군의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군의

[涅槃僧]의 양변을 꼬매서 통치마처럼 만든 약의를 덧입는 경우도 있다. 比丘尼는 한 장의 치마만으로는 벗겨질 염려가 있어 치마를 한 장 더 덧입어 노출을 방지하였던 것으로,¹⁸⁾ 승각기와 군의의 중간에 허리띠를 하고 입는다.

Ⅲ. 유형분류와 유형분포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후기의 수월관음도는 총 38점이며, 색상과 문양이 명확한 자료는 32점이다. 32점의 圖像 중에는 32명의 수월관음보살이 있는데 이 중 선이 표현된 복식 자료 89점을 선별하여 분석·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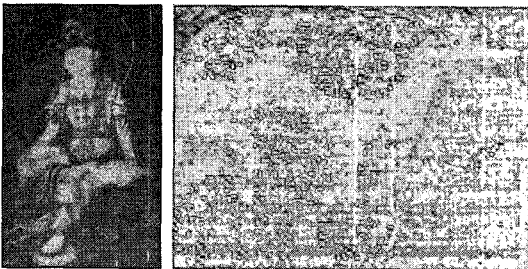
1. 유형분류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은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의 襪에 관한 연구¹⁹⁾에 준해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형과 장식형만 조사되었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이고, 장식형은 선에 장식을 가한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고려후기 수월관음도의 복식에 나타난 선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형

기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는 유형이다(그림 2).



〈그림 2〉 기본형(高麗佛畫, 圖 31)

〈그림 2〉는 14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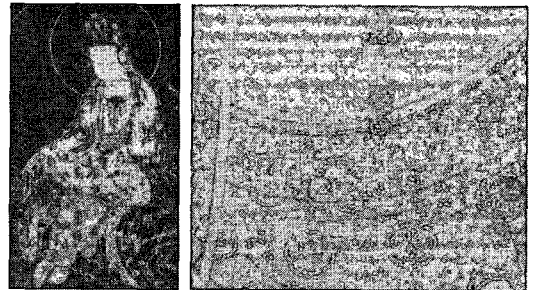
大和文華館 소장 수월관음도로 암좌위의 관음이 상반신은 거의 드러낸 상태로 條帛을 왼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복부 앞쪽으로 걸쳐 군의를 입었으며, 보관에서부터 투명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천의를 걸치고 있다.²⁰⁾ 분홍색 군의의 바탕천에는 금니의 국화원문이 일정한 간격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선에는 문양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금니에 의한 화려한 미는 연출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밝고 은은하며 자연스럽다.²¹⁾

2) 장식형

(1) 동색유문형

동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그림 3). 문양은 대부분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바탕천의 문양과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 3〉 동색유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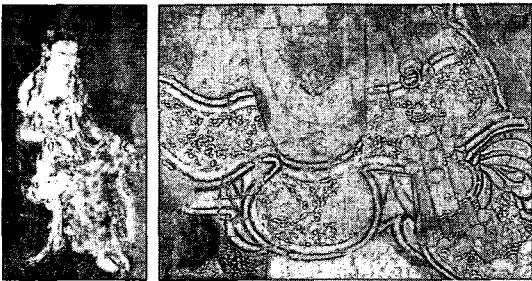
〈그림 3〉은 1323년(忠肅王 10) 徐九方²²⁾이라는 화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일본 泉屋博古館 소장의 수월관음도이다. 구성요소와 배치구도가 고려후기 수월관음도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천의는 투명하고 부드럽게 표현하여 그 위에 연화당초원문을 그려 넣었으며, 군의는 관음도 통례의 朱色 바탕에 귀갑문과 타원형의 상하 대칭 연화문을 그려 넣고 밑단에는 보상당초문이 치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승각기의 바탕천에는 연화문 주위에 국화문이, 단에는 당초문이 모두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형은 기본형과 같이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금니에 의해 화려하고 자연스럽다.

한편, 회화상으로 본 동색유문형은 실제 의복에서는 제천을 덧댄 제물선 위에 장식을 가한 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식방법은 도안된 문양에 색사와 금사로 수를 놓거나 금니로 그리거나 안료로 채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²³⁾

(2) 이색유문형

이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다르고 선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그림 4). 문양은 바탕천의 문양과 달리 별도로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 금니나 채색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4〉 이색유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150)

〈그림 4〉는 1310년(忠宣王 2)에 제작된 일본 鐘神寺 소장 수월관음도로,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제작경위, 화가, 일본의 전래과정까지도 밝혀진 중요한 도상이다.²⁴⁾ 선의 문양은 바탕천의 문양과 달리 승각기의 단에는 보상당초문이, 약의의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군의의 밑단에는 보상당초문이 금니나 채색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다소 딱딱하고 선명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정교한 문양에 의해 화려하고 인위적이다.

한편, 회화상으로 본 이색유문형은 실제 의복에서는 다른 천을 덧댄 이색선 위에 장식을 가한 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식방법은 동색유문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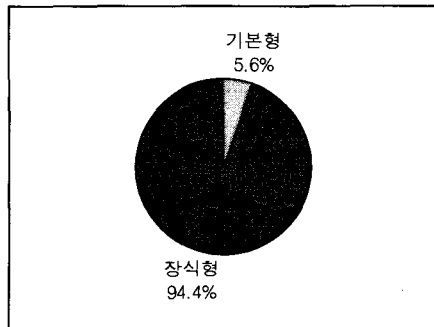
와 같이 도안된 문양에 색사와 금사로 수를 놓거나 금니로 그리거나 안료로 채색하기도 하고, 이 외에 별도로 제작된 화려한 직금단을 그대로 선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 유형분포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89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표 1〉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유물수(%)	
기본형		5(5.6)	5(5.6)
장식형	동색유문형	22(24.7)	84(94.4)
	이색유문형	62(69.7)	
소계		89(100)	



〈그림 5〉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표 1〉과 〈그림 5〉를 통해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89점 중 기본형이 5점, 장식형이 84점으로 장식형이 94.4%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기본형은 5.6%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5점이 나타나고, 장식형은 총 84점 중 이색유문형이 62점, 동색유문형이 22점으로 이색유문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수월관음도 복식의 선은 장식형 중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탕천과 다른 색상의 선에 금니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문양을 시문하거나 바탕천과 같은 색상의 선이라도 화려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어 시각적 효과가

큰 유형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와 군의·약의의 밑단에 더해져 領巾과 함께 마치 온몸에 끈을 두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와 전신을 감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천의와 더불어 귀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인 숭고함마저 느끼게 한다.

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단독형은 식물문과 기하문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된 것으로 분류된다.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82점²⁷⁾ 중 단독형은 28점으로 34.1%, 복합형은 54점으로 65.9%로 복합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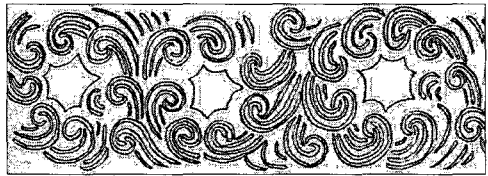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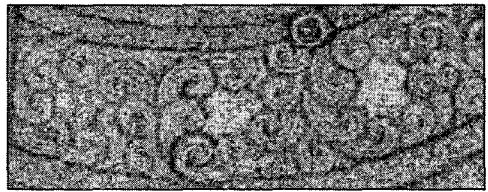
IV. 조형특성 분석

1. 문양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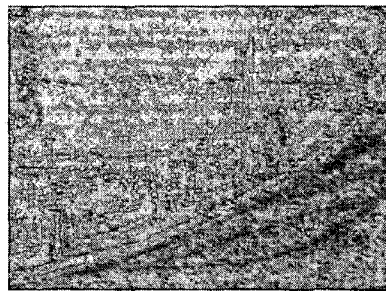
문양의 유형을 전보²⁶⁾에서는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문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식물문과 기하문만 조사되었다.

1) 구성요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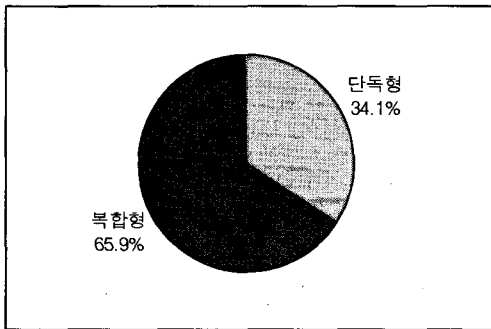
구성요소에 따른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2>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7> 단독형(식물문: 高麗時代의 佛畫, p. 154 ; 高麗佛畫, p. 225)



<그림 8> 단독형(기하문: 高麗時代의 佛畫, p.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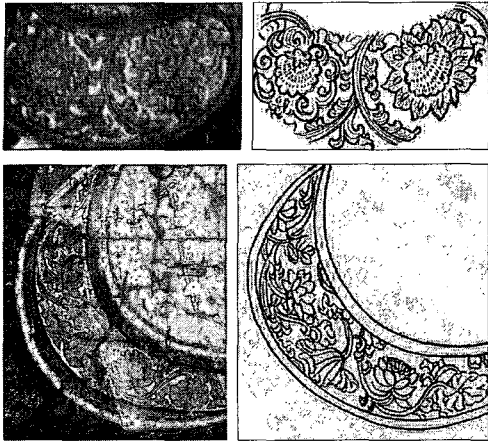
<그림 6>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표 2>와 <그림 6>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수

단독형의 경우 식물문의 당초문이(그림 7)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하문의 경우 回紋이(그림 8) 단독문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당초문은 수월관음도의 승각기 단에 주로 사용되었고, 회문은 약의의 허리단에 사용되었다.

<표 2>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분류	구성요소	문양의 종류[유물수, 복식종류(수량)]		유물수(%)	
		유물수	복식종류(수량)	유물수(%)	복식종류(수량)
단독형	식물문	당초문[27; 승각기(24), 약의(3)]		27(32.9)	28(34.1)
	기하문	회문[1; 약의(1)]		1(1.2)	
복합형	식물문+식물문	보상당초문[32; 군의(27), 승각기(3), 약의(2)], 연화당초문[20; 약의(18), 승각기(2)], 보상·연화당초문[2; 군의(2)]		54(65.9)	
소 계				8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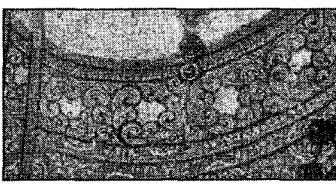





〈그림 9〉 복합형(식물문+식물문: 高麗佛畫, 圖 26, p. 219 ; 高麗時代의 佛畫, p. 150)

복합형의 경우 모두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되어 나타나는데(그림 9),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당초문에 화문이 더해졌으며, 화문은 보상화, 연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보상당초문은 수월관음의 군의 밑단에 주로 사용되었고, 연화당초문은 약의 밑단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당초문과 보상당초문, 연화당초문 등이다. 이는 아미타여래도의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종류와 같으나, 사용부위와 문양의 형태, 표현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은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아미타여래도와 수월관음도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차이점

불화의 종류 문양의 종류		아미타여래도	수월관음도
	사용부위	여래의 상의 가장자리, 협시보살의 승각기 단	관음보살의 승각기 단
당초문	형태		
	특징	당초문이 S자형의 연속식 모양으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됨	당초문이 도식화되어 단순하게 표현됨
	사용부위	협시보살의 군의 밑단	관음보살의 군의 밑단
보상당초문	형태		
	특징	보상화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화려하게 표현됨	보상화문(꽃, 열매, 잎, 넝쿨이 반복됨)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더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됨
	사용부위	여래의 승각기 단	관음보살의 약의 밑단
연화당초문	형태		
	특징	연화문과 당초문이 도식화되어 단순하게 표현됨	연화문과 당초문이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표현됨

〈표 3〉에 의하면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은 아마 타어래도 복식에 나타난 문양보다 수월관음도 복식에 나타난 문양이 더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如來가 圓滿具足한 남성의 대표라고 한다면 보살은 美의 絶頂體인 여성의 이상적 존재로 형상화한 것으로, 여래가 일체의 장신구를 몸에 걸치지 않은데 비해 보살은 최대로 장식한 보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갖가지 瓔珞로 장식하고 있는 것²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사회가 불교를 숭상하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호응을 받아 번성한 까닭에 이들의 화려한 귀족적 취향이 불화복식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식물문 중에서도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문, 보상화문 등이 당초문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미술에 주로 사용된 연화문, 보상화문, 당초문 등은 인도, 동아시아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도 많이 애용되어 불화에서도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나타난다.²⁹⁾

2) 배치구도별

배치구도에 따른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충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된다. 충전형은 대상 전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배치구도로서 대부분 연속문으로 표현되는 구도이고, 산점형은 장식하려는 표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구도이며, 회화형은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구도이

다.³⁰⁾

배치구도에 따른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충전형만 나타나고 산점형과 회화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84점³¹⁾ 중 충전형만 나타나고, 충전형 중에서도 연결형³²⁾만 나타나 수월관음도 복식의 선에 표현된 문양은 모두 충전형임을 알 수 있다. 문양이 충전되는 방법은 보상화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가득 메워진 경우도 있고(그림 9), 연화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가득 메워진 경우도 있다(그림 10). 충전형은 문양이 복합으로 조합되어 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충만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그림 10〉 충전형(연결형; 高麗時代の 佛畫,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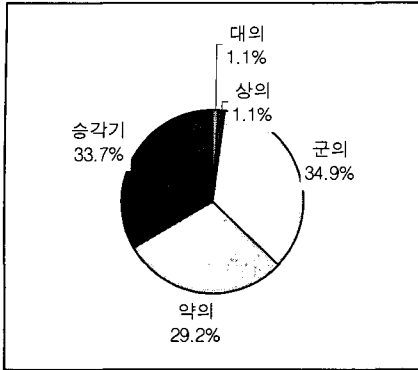
2. 사용범위

선이 사용된 수월관음도 복식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고,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표 4〉를 통해 수월관음도 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군의와 약의에는 이색유문형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고, 승각기에는 동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의와 상의에는 기본형이 사용되었다.

〈표 4〉 선이 사용된 복식종류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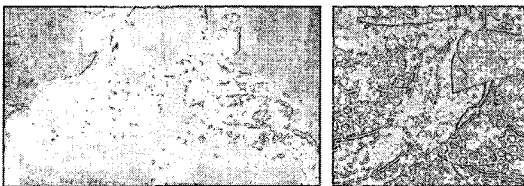
복식종류	유출수(%)						유형별 소계
	대의	상의	군의	약의	승각기		
기본형	1	1	2	0	1	5(5.6)	5(5.6)
장식형	동색유문형	0	0	0	2	20	22(24.7)
	이색유문형	0	0	29	24	9	62(69.7)
복식종류별 소계	1(1.1)	1(1.1)	31(34.9)	26(29.2)	30(33.7)	8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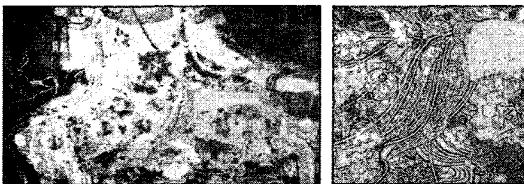
〈그림 11〉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율

〈그림 11〉에 의하면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순위는 군의>승각기>약의>대의=상의 등이다. 이처럼 선은 군의와 약의의 밑단이나 승각기의 단 등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사용됨으로써 의복 전체에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어, 선이 하나의 중요한 조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화상으로 본 3점의 수월관음도에서 군의의 형태가 특이하다(그림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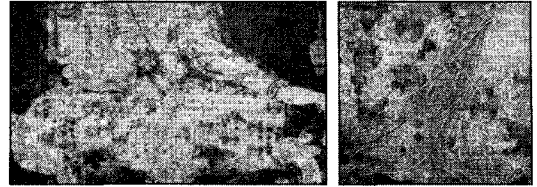


〈그림 12〉 군의(高麗時代의 佛畫, p. 206)



〈그림 13〉 군의(高麗時代의 佛畫, p. 196)

〈그림 12〉는 고려 말경인 14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功山寺 소장 수월관음도로 군의의 밑단에는 보상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또다시 붉은색의 단에 당초문과 국화문이 금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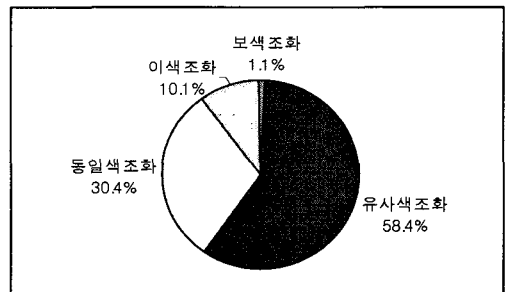
〈그림 14〉 군의(高麗時代의 佛畫, p. 199)

표현되어 있다. 〈그림 13〉은 14세기 초반에서 중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長樂寺 소장 수월관음도로 군의의 밑단에는 보상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또다시 붉은색의 단에 연화당초문이 금니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14〉는 14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개인 소장 수월관음도로 군의의 밑단에는 보상당초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또다시 붉은색의 단에 국화문이 금니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군의의 밑단이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의복에서는 군의를 이중으로 착용하거나, 별도의 다른 천을 덧대어 장식을 가한 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밑단에는 서로 다른 문양을 금니나 채색으로 시문하여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3. 배색방법

배색방법은 편의상 보색조화, 유사색조화, 동일색조화, 이색조화 등으로 구분한다.³³⁾

바탕천과 선의 배색방법을 알 수 있는 수월관음도 복식자료 총 89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5〉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표 5>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배색방법	유물수(%)	배색								
		바탕천			선			유물수		
보색조화	1(1.1)	자주	군청	1						
유사색조화	52(58.4)	朱	황	25	朱	갈+황	20	황	갈	7
동일색조화	27(30.4)	황		13	갈		6	朱		2
		자주		2	녹청		2	담청		1
		분홍		1						
이색조화	9(10.1)	백	갈+황	5	백	황	3	녹청	백	1
소 계		89(100)								

<표 5>와 <그림 15>를 통해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89점 중 유사색조화가 52점, 동일색조화가 27점, 이색조화가 9점, 보색조화가 1점의 순으로 유사색조화와 동일색조화의 비중이 각각 58.4%, 30.4%로 나타나고 있어 수월관음도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유사색조화이고 그 다음이 동일색조화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선은 유사색조화와 동일색조화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색상조화는 모두 바탕천과 선이 서로 융화되어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주어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V. 결론

고려후기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양의 구성요소와 배치구도, 사용범위,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형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려후기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은 기본형과 장식형으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이고, 장식형은 선에 장식을 가한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2.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장식형 중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바탕천과 다른 색상의 선에 금니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문양을 시문하여 화려하게 장식된 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와 군의·약의의 밑단에 더해져 領巾과 함께 마치 온몸에 끈을 두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전신을 감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천의와 더불어 귀족적이고 화려

한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인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3. 수월관음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구성요소에 따라 단독형(34.1%)과 복합형(65.9%)으로 분류된다. 단독형의 경우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그 중 당초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복합형의 경우 모두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되어 사용되었다.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문, 보상화문 등이 당초문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은 불교가 왕실과 귀족계급의 호응을 받아 번성한 까닭에 이들의 화려한 귀족적 취향이 불화복식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선에 사용된 문양의 배치구도를 보면 모두 충전형(100%)으로 되어 있고, 충전형 중에서도 연결형만 나타났다. 충전형은 문양이 복합으로 조합되어 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충만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5. 선의 사용범위를 보면, 군의(34.9%)와 승각기(33.7%)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군의에는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승각기에는 동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선은 군의의 밑단이나 승각기의 단 등 주로 겹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사용됨으로써 의복 전체에 장식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6. 선의 배색방법을 보면, 유사색조화(58.4%)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동일색조화(30.4%)가 다소 많이 사용되었다. 유사색조화와 동일색조화는 바탕천과 선이 서로 융화되어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7. 선이 가해진 의복의 미적 특성을 보면, 기본형이 들어간 의복은 밝고 은은하며 자연스러운 미를 표현하고, 동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화려하고 자

연스러운 미를 표현하며, 이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화려하고 인위적인 미를 표현한다.

참고문헌

- 1)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襟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5(2), pp. 58-69.
- 2) 박옥련 (1992).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6(1), p. 112.
- 3) 崔永順 (1992). 韓國의 菩薩服飾에 관한 研究 - 6~8세기 菩薩像과 高麗佛畫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韓慈伶 (1995). 高麗佛畫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美. 成均館大學院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미령 (2001). 고려후기·조선전기 지장보살도의 복식 변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고승희 (2000). 高麗佛畫의 紋樣 研究. 동국대 문화예술평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林明子 (1984). 高麗佛畫에 나타나는 衣裳紋樣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주 (1981). 高麗佛畫의 紋樣, 韓國의 美 7 -高麗佛畫-. 서울: 中央日報社, pp. 217-229.
- 5) 김부귀 (2000). 高麗佛畫 法衣文樣 研究 - 花圓文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 (2001). 고려불화에 나타난 연화문양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p. 58-69.
- 7) 황보지영 (2002). 圖像과 象徴을 痛한 高麗 水月觀音圖의 造形性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지현 (2001). 고려후기 수월관음도의 조형적 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금순 (2001). 高麗 水月觀音圖의 圖像과 信仰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희 (1998). 造形性으로 본 高麗 水月觀音圖 研究.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안정자 (1996). 高麗時代 水月觀音圖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1987). 高麗後期 水月觀音圖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선 (1984). 高麗佛畫에 관한 研究 - 水月觀音圖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희정 (1994). 高麗 水月觀音圖像의 淵源에 대한 재검토. 美術史研究 제8호, pp. 3-32.
정우택 (2001). 新出 高麗時代 水月觀音圖. 東岳美術學, 제2호, pp. 103-120.
林 進 (1977). 高麗時代의 水月觀音圖について. 美術史, 제102호, 東京: 美術史學會, pp. 101-117.
林 進 (1979). 新出の高麗水月觀音圖について. 佛教藝術, 제123호, 東京: 佛教藝術學會, pp. 46-64.
- 8) 박옥련 (1988). 高麗仏敎美術に現われた文樣の研究. 日本: de arte. 九州藝術學會, 4, pp. 35-48.
- 박옥련 (1992). 앞의 논문, pp. 111-122.
- 정현주 (1990).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배일에 나타난 文樣 研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희 (1994). 高麗 水月觀音圖의 白衣에 대한 考察. 美術史研究, 제8호, pp. 33-62.
- 9) 洪潤植 (1984). 高麗佛畫의 研究. 서울: 동화출판공사, p. 265; 박옥련 (1992). 앞의 논문, p. 112; 정현주 (1990). 앞의 논문, pp. 4-5; 이지현 (2001). 앞의 논문, p. 3.
- 10) 박도화 (1990). 보살상. 서울: 대원사, pp. 22-53.
- 11) 정우택 (1997). 高麗佛畫의 圖像과 그 아름다움. -高麗時代의 佛畫- 해설편. 서울: 시공사, p. 25.
- 12) 이경희 (1987). 앞의 논문, pp. 9-13.
- 13) 정우택 (1994). 고려시대의 불교회화, 한국불교미술대전②. 서울: 한국색채문화사, p. 232.
- 14) 박옥련 (1992). 앞의 논문, p. 112.
- 15)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 60.
- 16) 박도화 (1990). 앞의 책, p. 14.
- 17) 崔永順 (1992). 앞의 논문, p. 17.
- 18) 임영자 (1990). 韓國 宗教服飾. 서울: 아세아문화사, p. 30.
- 19)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p. 60-62.
- 20) 菊竹淳一, 鄭于澤, 井手誠之輔, 朴銀卿, 武田和昭 (1997). 도판해설, -高麗時代의 佛畫- 해설편. 서울: 시공사, pp. 99-100.
- 21)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 61.
- 22) 菊竹淳一, 鄭于澤, 井手誠之輔, 朴銀卿, 武田和昭 (1997). 앞의 책, 「至治三年癸亥 六月日 內班從事 徐九方畫 棟染道人六精」, p. 88.
- 23)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p. 61-62.
- 24) 菊竹淳一, 鄭于澤, 井手誠之輔, 朴銀卿, 武田和昭 (1997). 앞의 책, p. 88.
- 25)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 62.
- 26) 앞의 논문, pp. 63-64.
- 27) 총 89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기본형 5점과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는 2점은 제외하였다.
- 28) 정현주 (1990). 앞의 논문, p. 18.
- 29)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5). 앞의 논문, p. 65.
- 30) 앞의 논문, p. 65.
- 31) 총 89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기본형 5점은 제외하였다.
- 32) 충전형은 문양의 형태에 따라 연결형과 원형, 방형 등으로 분류된다.
- 33) 보색조화는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있는 색과의 배색이고, 유사색조화는 색상환에서 근접해 있고 색상의 차가 크게 나지 않는 색과의 배색이고, 동일색조화는 같은 색상으로 명도와 채도가 다른 색과의 배색이며, 이색조화는 보색·유사색·동일색조화를 제외한 경우와 무채색(黑, 白, 灰)과 유색이 조화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